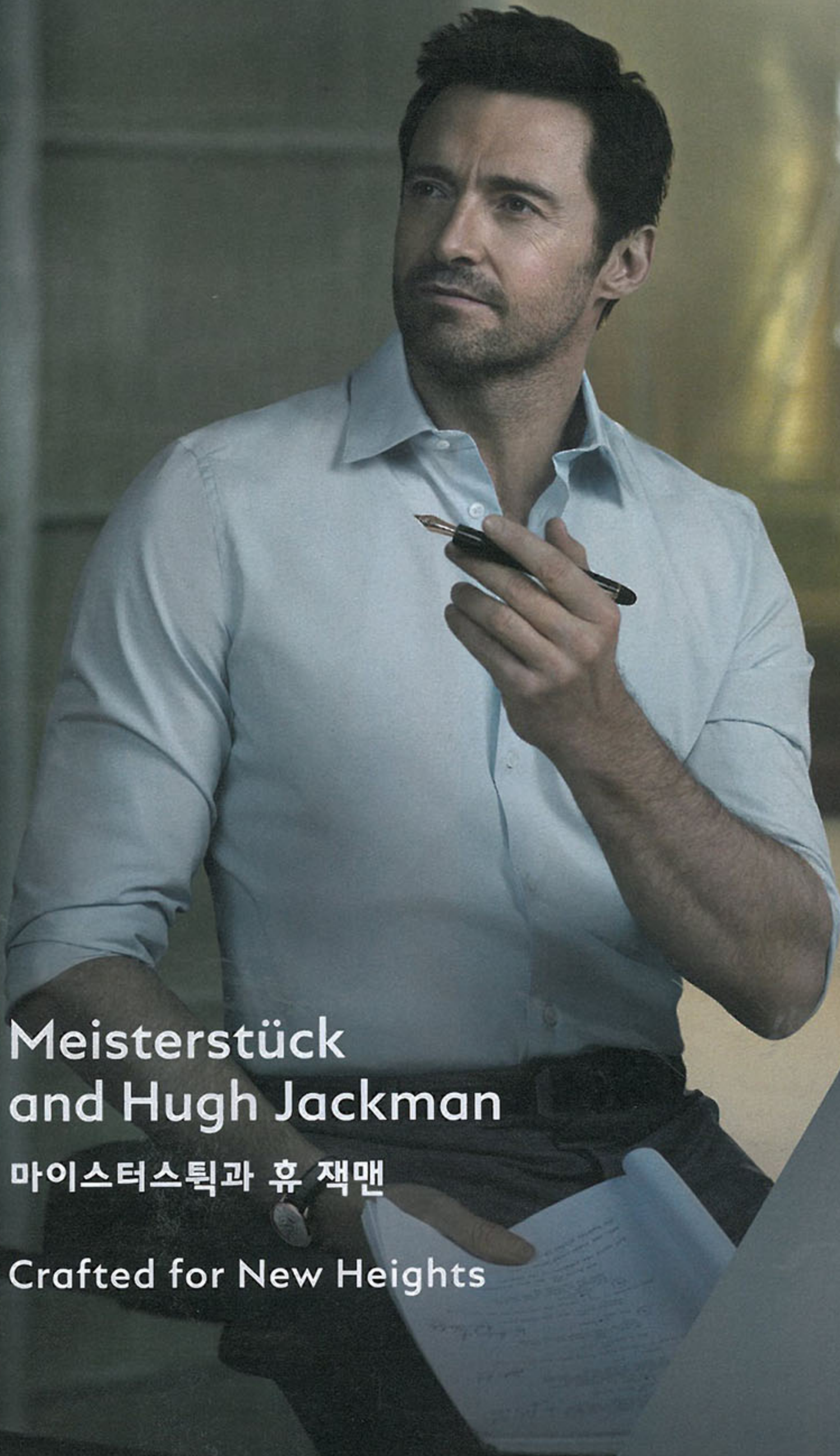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MARCH 2015 vol.122

MONT
BLANC 



Meisterstück
and Hugh Jackman

마이스터스틱과 휴 잭맨

Crafted for New Heights



Meisterstück 90 Years Collection

1 아티스트의 여행을 엿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것은 아마 여행일 것이다. 특히 아티스트에게 여행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술가의 여행은 작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아티스트의 작품을 보며, 올해 여행 스케줄을 새롭게 짜보는 것은 어떨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진정한 여행의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가지는 것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술가 한성필은 여행을 통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법을 선택한다. 작가라면 오지에서 자신을 침잠시켜 극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는 그간 사막과 남극, 북극 등의 척박한 환경에서 삶을 다르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왔다. 최근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열린 개인전 <지극의 상속>에서, 작가는 남극과 북극에서 촬영한 사진 작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그간 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언제나 버킷 리스트 1순위는 북극과 남극이었습니다. 대자연의 장엄함과 그 이면에 숨겨 있는 핏빛 역사 때문에 그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인간의 필수 에너지였던 기름을 얻기 위해 고래와 물개를 도살하고, 석탄과 석유 개발로 무분별하게 발굴한 극지의 풍경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촬영을 위한 여행을 준비했지요.” 그렇게 탄생된 작품은 우리가 극지방이라고 하면 떠올리던 빙하와 북극곰의 이미지가 아닌, 인간의 욕심이 휩쓸고 간 숭고하면서도 황량한 풍경이다.

기존 대표작 ‘파사드’ 시리즈 역시 가림막과 벽화와 같은 환상적인 트롬프뢰유(trompe-l'oeil, 눈속임 그림)를 촬영한 것이기에 세계를 여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사드’ 시리즈 초기에는 영국 유학 중이어서 인근에서 소재를 찾아다녔으나, 시리즈가 유명세를 탄 이후에는 리서치뿐 아니라 지인들이 추천해준 국내외의 장소를 찾아가 직접 확인하기 위한 여행 아닌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촬영을 위한 여행과 여행을 위한 여행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한다. 물론 두 종류의 여행에서 모두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 하지만 여행을 위한 여행을 갈 때는 카메라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여행 중 우연히 근사한 소재를 발견했을 때는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작품으로 만든 적도 있을 정도다. 촬영을 위한 여행을 갈 때는 일단 짐부터 엄청난

다. 이번 극지방 촬영에는 갑자기 카메라가 고장 날 때를 대비해 대형 카메라 5대, 디지털카메라 3대, 삼각대 2대를 가지고 갔다. 오랫동안 꿈꾸던 극지방에서 새로운 작품을 촬영한 한성필 작가가기에 다음 작품이 궁금해진다. 그의 새로운 여행지는 대형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5월 방문할 쿠바 아바나로 예정되어 있다. 음악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에서 그는 또 어떤 영감을 받을까?

김수자와 히로시 스기모토의 바다

세계를 여행하는 작가라면 단연코 김수자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우뚝 선 김수자는 올해 3월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10월 프랑스 퐁피두 센터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며 입지를 굳건히 할 예정이다. 그녀를 스타 작가의 반열에 올린 작품은 ‘떠도는 도시들: 보파리 트럭 2727킬로미터와 바늘 여인’이다. ‘떠도는 도시들: 보파리 트럭 2727킬로미터’는 산더미같이 쌓인 보파리 꾸러미에 앉아 유년 시절부터 살았던 전국 마을과 도시를 11일간 여행하며 만든 영상 작품이다. 바늘 여인은 작가가 관객에게 등을 돌린 채 대도시 여덟 곳의 군중 사이에서 있는 명상적 관점의 멀티 채널 비디오 설치 작품이다. 도쿄, 상하이, 멕시코시티, 런던, 델리, 뉴욕, 카이로, 라고스의 거리에서 작가는 때로는 행인의 의아한 눈빛을 받으며 가만히 서 있다. 작가 자신이 바늘이 되어 서로 다른 장소에서의 사회적 맥락을 실에 꿰어 관통하는 것이다. 최근작은 총 6부작으로 구성된 ‘실의 궤적’인데, 제목 그대로 세계 각 지역의 바느질, 직조, 레이스짜기와 같은 행위를 통해 삶의 궤적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페루 쿠스코의 성스러운 계곡, 마추픽추, 타킬레 섬마을에서부터 벨기에의 브뤼주, 크로아티아의 레포글라바, 파그, 스페인 알람브라 궁전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풍광들이 지역 고유의 색조와 건축물, 실 짠 퍼포먼스와 연결되어 마치 작품처럼 꿰어진다.

김수자의 작품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과도 같은 동적인 비디오 영상 작품이라면, 히로시 스기모토는 오랜 시간을 한순간으로 함축시킨 것 같은 정적인 사진 작품을 선



보이는 작가다. 그의 대표작 ‘극장’ 시리즈는 장노출 기법을 사용해 미국의 아르데코 극장, 시네마 홀, 자동차 극장을 촬영한 작품이다. 한 편의 영화를 한 장의 사진에 담기 위해 영화 상영 시간 내내 렌즈를 노출시켜 스크린은 백색 공백이 되고,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극장 내부는 은은하게 밝혀진다. 사진의 숨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우아함에 매료당하는 아름다운 연작이다. 또 다른 대표작 ‘바다 풍경’ 역시 제주, 에게 해 등 각국의 바다를 찾아 다니며 장노출로 촬영한 아름다운 작품이다. 해변 마을에서 장기 체류까지 불사한 그의 열정을 담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바다와 같이 고요한 세계의 바다가 펼쳐지는 전시장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17점의 조각 설치 작품 ‘5원소’에도 각국의 바다 풍경이 담겨 있다. 김수자 역시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였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촬영한 ‘보파리-알파 비치가 바로 그것이다. 노예 무역이 성행했던 알파 비치를 촬영해, 하늘과 바다의 상하 구조를 역전시켰다. 푸른 하늘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의 어색한 대비로 노예로 팔려간 원주민들이 느낀 상실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거장의 시간을 담은 작품들은 완전히 다르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선사한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할 수 있다.